

2

디지털 시대의 놀이우드 영화 산업

변재길 교수 jaypyeon@ysu.ac.kr
영산대학교

인구 1,300만 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수도 라고스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부침을 거듭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제작 편수 기준으로 인도의 볼리우드 다음가는 세계 2위권의 영화 산업으로 올라서면서 지금은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번창한 대중문화 산업이자 아프리카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 개요

2014년에 발간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GDP가 약 5,100억 달러로 세계 26위권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나이지리아는 매년 7.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2030년경 세계 20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1억 7,000만 명의 인구대국인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부패와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리즘의 만연으로 그동안 힘없는 골리앗으로 불리어 온 것도 사실이다¹.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1999년 군부종식에 따른 민주화를 복원한 이후 올봄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으로써 이제는 아프리카의 미래로 거듭나고 있다. 올봄 치안확보, 부패척결, 경제개발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무하마드 부하리는 부유한 남부 니제르 델타 출신의 기독교도인 굿럭 조나단과 반대로 무슬림 신자들이 많이 사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카치나주 출신이다. 사실 그는 이미 1983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다 20개월 만에 또 다른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는 군부 독재자였다. 그럼에도 부하리가 치안 확보와 부패척결, 경제개발 등의 공약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자 최대의 경제권역을 갖고 있음에도, 극심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가진 변화와 개혁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나이지리아에 총 2,875만 달러를 지원한 한국 정부는 최근에는 전자정부역량강화사업과 초중등시범학교단지 건립사업 등을 포함한 여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나이지리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리스크, 부패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².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석유자원과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그리고 이번 평화적 정권교체에서 증명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적 의지 등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비록 나이지리아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63% 정도로 예상된다는 지표는 나이지리아 경제에 여전한 분배 불균형과 극심한 빈

부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긴 하지만³, 경제,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나이지리아가 보여주는 성장세는 실로 괄목상대하다. 특히, 영화와 통신 산업은 이러한 나이지리아 성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다. 일례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0년 기준 60만 명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에는 8,8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⁴. 영화 산업은 2010년 기준 8억 달러의 매출에 30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2014년 발표된 나이지리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33억 달러에 제작 편수는 1,844편(2013년 기준)에 달한다⁵.

2. 놀리우드의 시작과 기원

이른바 놀리우드(Nollywood)라고 불리는 현재의 나이지리아 대중 영화 산업의 시초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나이지리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부과된 여러 경제 제재 조치의 여파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다. 당연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셀룰로이드 필름 기반의 영화 제작은 엄감생심 어려운 일였고, 이 때문에 영화인들은 새로운 대안과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인구 1,300만 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수도 라고스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부침을 거듭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제작 편수 기준으로 인도의 볼리우드 다음가는 세계 2위권의 영화 산업으로 올라서면서 지금은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변창한 대중문화 산업이자 아프리카 최초이자 유일하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초 혹독한 경제 불황으로 누구나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 당시 라고스 시내 비디오 가게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케네스 네부(Kenneth Nnebue)는 가게 창고에 팔리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

여있던 비디오 공테이프를 제대로 처분하고 돈도 벌 요량으로 이를 활용하여 ‘속박의 삶(Living in Bondage, 1992)’이란 제목의 저예산 홈 무비를 캠코더로 찍었다.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다. 한 남자가 돈을 벌 요량으로 비밀스런 주술을 벌여 아내를 희생 제물로 바쳐 살해하지만 나중에 귀신이 되어 돌아와 괴롭히는 아내의 원혼으로 괴로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나이지리아 제일의 대도시 라고스를 배경으로, 부도덕과 부패, 삼각관계와 가정불화 등의 여러 주제를 미신과 마술, 종교, 그리고 멜로드라마 등의 여러 요소를 두루 섞어 연출하였다. 뜻밖에도 이 영화는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수백만 장 이상의 비디오로 팔리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이후 이와 유사한 주제와 줄거리를 가진 비디오 모작이 셀 수 없이 많이 양산되며 이른바 놀리우드 영화 산업의 탄생을 알렸다⁶.

현재 놀리우드의 인기와 파급력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유럽과 북미 그리고 호주에 걸쳐 뻗어있는 아프리카 교민 공동체 사회까지 걸쳐 있다. 1990년대 초 단순히 캠코더를 가지고 비디오를 촬영해 홈 무비를 만드는 수준에서 출발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지금은 최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연간 2,000편 안팎의 작품을 제작해 내는 수준이 되었으며, 나이지리아 현

1 세계일보, 阿 최대시장 떠오르는 나이지리아 주목해야, 2015.8.27.

2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한 나이지리아, p2.

3 미디어잇, 핀테크 시대① 현금이 사라진다, 2015.5.25.

4 전혜린, 2011, 자원의 저주 딛고 경제대국 발돋움, 나이지리아, 세계는 지금, 2011.9. 통권 333호

5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6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우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글로벌 문화현상이 되어있다⁷.

1990년대 이후, 놀리우드 영화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 받아들여 소형 디지털 카메라와 개인용 PC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DVD와 VCD로 제작한 후, 평균 개당 2달러 남짓한 가격으로 길거리 시네 클럽과 비디오방 등지에 팔려 나간다. 영어는 기본이고 나이지리아 3대 현지 언어인 요루바, 이보, 하우자어로도 제작되는 놀리우드 영화는 평균 2만 달러~7만5천 달러 사이의 제작비를 가지고 공포, 멜로드라마, 코미디, 액션 등의 장르 영화를 주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 저 예산과 짧은 제작기간의 특성상 좋지 않은 조명과 사운드를 동반한 어설픈 특수효과와 영상 편집 등으로 영상 품질은 기대 이하의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놀리우드 영화는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놀리우드가 가장 큰 인기를 끈 지역은 다름 아닌 아프리카 대륙이다. 수십 년간 수입영화만 볼 수밖에 없던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관객들에게 아프리카 고유의 이야기와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크게 어필하였고,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 자생 영화 산업으로서 놀리우드 영화 발전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놀리우드 영화는 케냐, 탄자니아, 카메룬 등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전역에서 시청되면서 이들 국가의 영화 산업이 불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DR콩고, 카메룬, 이디

그림1 젊은 시절의 케네스 은네부



자료 : <http://bumculture.blogspot.kr/2012/02/ken-nnebue-father-of-nollywood.html>

오피아, 잠비아, 남아공, 그리고 짐바브웨 등은 물론이고, 케냐의 리버우드, 우간다의 우가우드, 탄자니아의 봉고우드 등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영화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요즘 대단히 인기 있는 탄자니아의 봉고우드 영화 산업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탄자니아 관객도 처음에는 수입산 놀리우드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2000년 초부터 현지 영화 제작업자들이 야심차게 자체 비디오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현지 자국 내에서만큼은 봉고우드 영화의 인기가 놀리우드 영화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다⁸.

놀리우드가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끌고, 각국의 영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놀리우드 영화가 가진 같은 아프리카라는 공통되고 익숙한 문화적 신념, 생활 습관, 전통, 사회 문화 구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라는 로케이션 공간과 캐릭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인으로서 관객이 똑같이 느끼는 공포와 꿈과 열망을 영화의 주제와 이야기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⁷ Matthias Krings, Onookome Okome ed., 2013, p.25.

⁸ The Conversation, From Nollywood to New Nollywood: the story of Nigeria's runaway success, 2015.9.28

3.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놀리우드 영화

원래, 아프리카 시네마는 1960년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랑스 영화 산업과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들 영화는 주로 유럽의 아트시네마와 유사한 작가주의 영화를 지향했다. 놀리우드 영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African Auteur Cinema) 정도였다. 셀룰로이드 필름 기반의 독립영화는 불어권 서아프리카에서 명맥을 유지했다. 1969년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처음 개최된 후 2년마다 열리는 범아프리카 영화제(FESPACO)가 이들 영화의 주된 쇼케이스 무대였다⁹. 이들은 영화를 아프리카 정신 해방의 도구로 인식하였다. 이들이 제작한 영화는 포스트 식민주의 영화 전통의 성격이 강했으며, 때론 상당히 노골적으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며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지배적 시각에 대항하는 등 저항과 해방의 의도를 담은 영상 미학을 연출하고자 애썼다¹⁰.

그러다가,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현상이 아프리카 영화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값싼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싸구려 대중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놀리우드라 불리기 시작한 나이지리아 영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길거리 어디를 가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디오들로서 기존의 작가주의 계열의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미신과 마술의 연출과 묘사를 통해 아프리카 대중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¹¹.

놀리우드 영화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상품의 아이콘이 되었고, 순식간에 아프리카 영화 세계를 지배하는 영화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놀리우드 영화는 대체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즉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비주얼의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분명한 선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¹². 가장 대표적인 예는

출연 배우들이 서구적인 외모의 배우가 아닌 그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만하고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외모의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배우들이다. 이것은 아프리카 영화의 자연스러움과 친숙성을 넘어 사실감과 동질감을 확보하여 일종의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영화의 재미와 완성도를 떠나 놀리우드 영화가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¹³.

놀리우드 영화는 내용 측면에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충격적인 일탈을 다루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대부분 영화가 부자가 되고 싶단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질투한다든지, 선남선녀를 그리워하는 등 관객이 한 번쯤 경험했거나 자신의 일일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실제 일상의 경험과 감성을 스크린을 통해 연출한다¹⁴. 놀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은 대부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의 희생을 서슴지 않는 극단을 보여주지만, 부의 성공을 알리는 화려한 자동차, 값비싼 의상, 대저택, 그리고 화려한 실내장식들로 연출된 시각 영상을 수반한 이야기는 이내 사회적 규범의 일탈과 도덕 붕괴와 연결되면서, 악당은 벌을 받고 피해자는 복수에 성공한다는 식의 멜로드라마와 같은 서사 종결을 맞이한다. 사

⁹ 이를테면 와가두구를 아프리카의 할리우드라고 부르는 식이었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와가두구는 아프리카 시네마의 상징이었다(Gorham Kindem, ed., 2000, p.132)

¹⁰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1.

¹¹ 놀리우드는 기존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대척되는 지점에 서 있다. 작가주의 영화인들에게 영화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헤게모니적 시각을 뒤집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작가주의 영화가 표방하는 아프리카 해방정치의 시각과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인의 미신과 마술은 허파의 대상이자 걸림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영화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대중영화의 반열에 오른 것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경멸스러운 내용과 전통을 담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아프리카인의 보편적 정서와 향수를 자극하고 그들의 일상을 반영한 동시대적 현대성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¹²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 36

¹³ Andrea Bandhauer, Michelle Royer ed., 2015, p.26

¹⁴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36

악하고 비도덕적인 악당은 갑자기 마른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전지전능한 목소리가 들리는 등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이 수반되면서, 느리고 고통스러운 고뇌에 찬 몰락 과정을 경험하며 벌을 받는다. 결국, 영화가 결말에 이르게 되면 위협받던 도덕과 사회적 규범은 제자리를 찾게 되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다. 이와 같이 어떤 교훈을 담보로 한 놀리우드 영화의 주제 의식은 영화 기법상의 스타일이나 편집 기술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칠 만한 극단적 일탈의 내용을 담은 줄거리나 이야기 전개를 통해 어떤 충격의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관객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른바 분노의 미학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통해 전개된다¹⁵. 이와 같은 미학은 어떤 물리적인 자극 효과를 위해 사실상 의도적으로 연출된다. 분노의 미학은 속도감 있는 서사 전개와 편집을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 영화가 전개될수록 마치 관객이 영화 속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실감과 현장감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관객들의 흥분이 배가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리우드 영화는 만들어지는 영화 대부분이 비디오영화라는 점에서, 이들 작품을 기존의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비교해서 영상미학 상의 어떤 특징과 차이를 단적으로 재단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놀리우드 영화가 기존의 작가주의 계열 영화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주의 영화들이 대체로 열린 결말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놀리우드 영화는 관객들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바를 확실히 챙겨 결말을 종결짓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놀리우드 영화는 어떤 열린 결말이나 생각할 여운조차 남겨놓지 않는 닫힌 결말의 영화라는 점이 특징이다¹⁶.

그동안 놀리우드 영화와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는 사실상 같이 만날 일이 없었다. 와가두구의 범아프리카영화제(FESPACO)와 남아공의 더번 국제영화제(DIFF)는 비디오 제작 방식의 놀리우드 대중 영화를 잘 받아주지 않는 반면, 아프리카 전역에 널려있는 비디오방은 놀리우드 영화와 같은 대중영화를 틀지 예술 영화를 잘 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¹⁷. 하지만 비디오 제작 방식은 역설적으로 놀리우드가 외형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 나아가 아프리카 어디든 제대로 영화를 상영할만한 극장 내지는 상영관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놀리우드 영화는 역동적이고 아프리카 대중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아프리카 대중영화의 출현을 알리고 있다¹⁸.

사실 기존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와 비교해도 놀리우드 영화는 기술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뚜렷하고 화질도 조잡하다. 그러나 두 부류 영화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아프리카 작가주의 영화가 아프리카 영상 미학과 보편적 예술을 추구하는 데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관객을 끌어 모으고 확고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놀리우드 영화는 제대로 된 상영관이 없어 관객이 영화를 보기 어려운 기존 셀룰로이드 필름 기반의 아프리카 영화가 실패한 유통 배급의 문제를 비디오 영화 제작을 통해 일거에 해결하고 일반 대중을 관객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¹⁹.

놀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영화 자체의 작품성과 품질이 아니라 배급과 유통을 통해 수요자로서 관객에게 얼마나 쉽고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한 데 있다. 게다가 철저히 시장과

¹⁵ Akin Adesokan, 2011, p.81.

¹⁶ Maria Erikson Baaz, Mai Palmberg, ed., 2011, p.104.

¹⁷ Matthias Krings, Onookome Okome ed., 2013, p.26.

¹⁸ Uchenna Onuzulike, 2007, p.21.

¹⁹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36.

유통을 중시한 할리우드 영화는 비록 불법 복제라는 내재적인 숙제가 있긴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최대 난제인 자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이는 아프리카 문화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종래의 아프리카 작가주의 계열 영화 대부분이 프랑스 혹은 다른 유럽 국가의 주재국 문화원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그들의 문화 예술 정책에 순응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²⁰.

4. 할리우드의 위기와 뉴할리우드 영화의 등장

할리우드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불법복제라는 복잡한 현실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 케네스 은네부의 성공 이후 십 년간 할리우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 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각종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고 곧 영화 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국내 시장에는 비디오 필름 마켓 이외에는 제대로 된 상영관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할리우드 영화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불법복제와 비공식 유

그림2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영화 유통시장 가운데 하나인 라고스 근교 알라바 국제시장 안에 위치한 필름 마켓



자료 : <http://america.aljazeera.com/multimedia/2014/12/nollywood-nigeriaregroups.html>

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다²¹. 이 같은 불법복제와 비공식 유통채널은 할리우드 영화와 영화 산업을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는 크게 일조했다²².

하지만 결국 과도한 불법 복제의 증가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여기에는 할리우드 영화의 미디어 제작 매체가 VHS에서 VCD로 바뀌는데다, 위성 TV채널과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채널이 등장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불법복제에 기반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의 거대한 지하경제와 디지털 기술은 할리우드 영화의 갑작스런 붐을 일으킨 장본인인 동시에 위기의 주범이기도 했던 것이다²³.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이지리아 경제의 특성은 지하경제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시중에 한 번 발행 유통된 화폐 가운데 60%는 제도 금융권으로 환수되지 않는다.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비디오 영화 산업도 셀 수 없이 많은 소규모 영세 업체 사이의 비공식적 상호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불법 미디어 복제가 제공한 상업 경제의 인

²⁰ Ralph A. Austen, Mahir Saul ed., 2010, p.34.

²¹ 나이지리아의 필름 마켓은 라고스(이두모타), 오니체(어퍼 이웨카), 그리고 아바(파운드 로드)에만 있다. 할리우드의 공장 역할을 하는 에누구에는 정작 필름 마켓이 없으며, 최근 신흥 영화제작의 중심으로 급부상 중인 아부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Barclays Foubiri Ayakoroma, Trends in Nollywood: A Study of Selected Genres, Kraft Books, 2014, p. 105. 나이지리아에 제대로 된 멀티플렉스 기반의 상영관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라고스에 실버버드 갤러리아 시네마가 생긴 이후부터이다.

²² Alessandro Jedlowski, 2013, p.39.

²³ Ramon Lobato, 2012, p.65.

프라를 기반으로 불법과 합법의 불안한 동거 관계에서 진화했다. 규제가 없는데다 있으나 마나 한 저작권법은 경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엄청난 모방과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지만, 이것은 놀리우드가 단기간 내에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불과 몇 편 되지 않던 연간 제작편수는 2000년대 중반에 가면 연간 1,500편을 웃돌게 된다. 그러나 매주 출시되는 엄청난 편수의 낮은 품질의 비디오와 천편일률적인 내용에 식상한 나이지리아 관객들은 점차 자국 연예 산업에 흥미를 잃어갔고, 나날이 바뀌는 기술 환경은 이 같은 위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비디오로 대표되는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에 근본적인 전환과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른바 극장 상영권 배급이 아닌 비디오 직배 모델을 창출해 낸 것이다. 그렇지만 놀리우드 영화는 근원적으로 불법 복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홍콩과 인도의 볼리우드의 경우 불법복제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일정 부문 제도권 내 극장 상영의 출구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상영권과 같은 기반시설이 전무 하다시피 한 놀리우드는 비디오 말고는 마땅한 배급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

황에서 필름 테이프 기반의 VHS 영화 제작에서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CD 제작 방식 전환은 불법복제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연출했다²⁴.

VHS 시절에는 영화 한 편당 최대 15만 장을 제작해서 유통시장에 내놓으면 만일 흥행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테이프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다²⁵.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 CD가 도입된 후에는 이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복제가 가능해져 엄청난 규모의 지하 놀리우드 영화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의 우려 때문에 편당 정품 제작 카피 수도 예전의 1/10로 대폭 줄어 한번에 겨우 1~2만 개 정도의 정품 수량만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²⁶.

게다가 2003년 아프리카 매직(Africa Magic)을 비롯한 위성 영화 채널의 개국과 놀리우드 영화 전용 케이블 방송의 등장,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복제의 증가도 놀리우드 영화의 하락세를 더욱 더 부채질하면서 영화 산업 자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갔다²⁷. 이러한 상황은 2008년과 2009년에 가서야 겨우 바닥을 찍었지만, 영화 산업의 구조 자체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고, 작품당 투입 가능한 평균 제작 단가는 겨우 2백만 나이라(약 15,00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²⁸. 합법적으로 추산 가능한 정품 판매 카피 수는 1만~2만 개 사이 정도였는데, 제작 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영화 산업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최근까지도 유통되는 DVD 가운데 열에 아홉은 불법 복제 영화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지하경제에 의존한 놀리우드 영화의 성장과 세계화는 내부적으로는 영화 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²⁹.

그런데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이할 무렵 많은 제작자는 우선 불법복제에 맞서 영화 산업의 부활을 꾀할 가지 방책으로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 난국 타개를 시도하게 된다³⁰. 다국적 출연 배우와 제작진을 동원한 해외 현지 로케이션 진행, 35mm 영화 촬영, 비디

²⁴ Alessandro Jedlowski, 2013, p.36.

²⁵ Alessandro Jedlowski, 2013, p.37.

²⁶ Alessandro Jedlowski, 2013, p.38.

²⁷ Alessandro Jedlowski, 2013, p.37.

²⁸ Alessandro Jedlowski, 2013, p.38.

²⁹ Time, Welcome to Nollywood: Nigeria's Film Industry is More Prolific than Hollywood – and Faces Even More Piracy, 2011.7.20.

³⁰ 2011년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에서 불법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82%에 이른다. The Guardian, Nollywood goes for new models to curb piracy, 2011.1.14.

오 출시가 아닌 극장 상영 등을 시도한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³¹.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영화는 이후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주요 아프리카 국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멀티플렉스 극장 관람 문화의 부활을 주도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기존 비디오 영화제작과 달리 대규모 자본과 글로벌 공동제작 방식을 통해 처음부터 대형 스크린 극장 개봉을 목표로 영화를 제작했다. 노예문제를 다룬 제타 아마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2006)’와 쿤리 아폴라얀의 ‘이라파다’(2006)와 ‘피규린’(2009) 등이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대형 투자가 뒷받침된 덕분에 영상 제작 품질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기존 뉴올리우드 비디오 영화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을 보여준 이들 영화는 처음부터 다국적 제작진과 해외 현지 촬영을 통해 극장개봉과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작되었기에 이들 영화를 일명 뉴올리우드 계열의 영화라고 부른다³².

나이지리아 극장 개봉 시 5백만 나이라의 극장 매출을 올리고 영국 오데온 시네마 극장 개봉에도 성공한 바 있는 ‘이라파다’는 일정 기간의 극장 상영 뒤에 DVD로 출시된 첫 나이지리아 영화이기도 하다³³. 이것은 당시 나이지리아 영화의 극장 상영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여전히 많은 수의 영화가 비디오 CD 내지 DVD로 제작 출시되던 시기임을 감안해 본다면 아폴라얀의 사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통과 관례를 마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2009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된 바 있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피규린’은 높은 수준의 영화적 완성도와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면서 그의 영화는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각지의 뉴올리우드 관객을 겨냥한 뉴올리우드 시네마의 모델이 되고 있다³⁴.

스테파니 오케레케의 ‘유리창 넘어(2008)’도 뉴올리우드 영화의 또 다른 성공적인 해외 제작 사례이다. 다국적 출연진을 동원하여 미국 LA를 배경으로 이주민 다문화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로서, 실버버드 시네마 배급을 통해 개봉되었을 때, 3주 만에 1천만 나이라(약

65,000달러)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기록했다³⁵. 이것은 당시 나이지리아 전국에 몇 되지 않는 개봉관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레케 감독의 성공에 힘입어 멀티플렉스 개봉관 문화의 부활이 검토되고 유사한 소재를 다룬 장르 영화들이 앞다투어 나오기 시작했다.

뉴올리우드 영화에서 해외 아프리카 교민 사회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은 마케팅 차원에서 현지촬영과 스토리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치네제 아예네의 ‘이제(2010)’는 25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나이지리아 특급 배우 주니비에브 은나지와 오모톨라 잘라드-에카인테를 비롯한 다국적 출연진과 제작진을 동원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와 나이지리아 플라토를 오가며 현지 촬영을 진행하였다. ‘이제’는 아메리카 드림의 환상과 미국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냉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다룬 범죄스릴러물이다. 이 영화는 2010년 라고스 실버버드 시네마에서 프리미어 개봉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 상영관(라고스의 실버버드, 오존, 제네시스-디럭스, 아부자의 실버버드, 포트하코트의 제네시스-디럭스)에서 3주 만에 6천만 나이라(약 380,000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올려 같은 시기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캐리비언 해적’의 인기를 능가했다³⁶. ‘이제’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런던

31 Alessandro Jedlowski, 2013, p.45.

32 예를 들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하더라도 2006년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 필름 마켓 상영을 시도했고, 이것은 향후 뉴올리우드 영화들이 극장 개봉과 국제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제작되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3 Alessandro Jedlowski, 2013, p.46.

34 New York Times, A Scorsese in Lagos: The Making of Nigerias Film Industry, 2012.2.23.

35 Vanguard, Stephanie’s Through the Glass goes to Ghana, Kenya...grosses N10m, 2009.10.17.

36 Alessandro Jedlowski, 2013, p.47.

의 오데온 극장에서도 프리미어 개봉을 하고, 보스턴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유수의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³⁷. 이들 뉴놀리우드 영화의 잇단 성공은 단순히 몇몇 영화의 상업적 흥행을 넘어 이제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이 대도시 멀티플렉스 극장 개봉 중심의 디지털 영화 산업으로 본격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맺음말

나이지리아는 혹독한 경제 위기와 불황을 겪은 지 불과 20여년 만에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영화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에 걸맞게 영화의 도시 라고스는 라고스 아일랜드에 있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이두모타 마켓과 나이지리아 최대의 전자 제품 시장인 알라바 인터내셔널 마켓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비디오/DVD 필름 마켓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영화의 소비는 서서히 디지털 필름 기반의 멀티플렉스 시네마와 인터넷 스트리밍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04년 라고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실버버드 갤러리아 개관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 최초의 멀티플렉스의 문을 연 실버버드 시네마 그룹은 라고스와 아부자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고, 곧 그 뒤를 이어 제네시

그림3 실버버드 갤러리아 시네마 : 2004년 라고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개관한 나이지리아 최초의 멀티플렉스



자료 : <http://www.aboutlagos.com/wp-content/uploads/2011/01/silverbird6.jpg>

스 디렉스 시네마가 라고스와 포트 하코트, 그리고 에누구 등지에서 총 4개의 멀티플렉스를 개관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문을 연 필름하우스 시네마 그룹은 라고스 지역 내 세 개의 멀티플렉스를 포함하여 이바단, 포트 하코트, 칼라바 등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총 10개의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5개의 신규 멀티플렉스 개관을 앞두고 나이지리아 최대 멀티플렉스 상영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최초의 IMAX 상영관 건설이 라고스에서 추진되고 있다³⁸.

이것은 라고스 기반의 비디오 영화 산업에서 시작한 놀리우드가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멀티플렉스 영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비디오 중심의 영화 산업이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기반으로 한 메인스트림 개봉영화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놀리우드 영화 산업 자체는 이제 대도시 기반의 문화산업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나이지리아 영화의 대중적 접근성과 사회적 영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것은 놀리우드가 이미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아프리카 다문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

³⁷ Bellanaija, IJE divas Omotola, Genevieve & Chineze rule the red carpet as "IJE-The Journey" Premieres in Lagos, 2010.8.2.

³⁸ This Day Live, IMAX signs agreement with Filmhouse Cinemas, 2015.12.15

그림4 제네시스 시네마 본관 : 2008년 라고스 레키에 개관



자료 : <http://genesisdelluxecinemas.com/>

적인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 지구적 극장 개봉 영화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그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최근 나이지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도 앞으로 한국영화와 나이지리아 영화와의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³⁹.

세계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인 미국의 넷플릭스는 최근 놀리우드 영화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인가? 얼마 전 국내 진출을 목표로 한국의 KT와 LG 유플러스를 비롯한 IP TV 3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는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자만 6,6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이다⁴⁰. 넷플릭스는 1997년 미국에서 DVD 대여업체로 출발한 이후, 2007년 인터넷을 이용한 주문형 비디오(VOD)사업을 시작하여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비디오대여점은 문을 닫았고, 케이블TV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5년 초 나이지리아의 165만 달러짜리 최신 인기 영화 October 1의 주문형 온라인 스트리밍 상영에 관해 이미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⁴¹. 최근에

는 글로벌 스트리밍 영화 제작 서비스를 목적으로 캐리 푸쿠나가(Cary Fukunaga)의 인기 전쟁소설 ‘국경 없는 야수’의 판권을 1,200만 달러에 매입했다⁴².

이뿐만이 아니다. 순전히 놀리우드 영화만을 위한 주문형 비디오 방식의 플랫폼도 최근 등장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나이지리아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iROKOTV.com이다⁴³. 뉴욕에 기반을 둔 투자회사 타이거 글로벌 앤 스웨덴으로부터 2,500만 달러 투자를 받은 바 있는 iROKO 파트너스는 월 1,50달러의 정액제로 놀리우드 영화 콘텐츠를 전 세계 가입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올 4월에는 iROKOTV가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⁴⁴.

넷플릭스와 iROKOTV의 이 같은 행보는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인구대국인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한 놀리우드 영화가 가진 디지털 시대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하겠다. 주문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놀리우드 영화의 글로벌 진출과 그 확장성은 나이지리아 놀리우드 영화 산업의 생산성, 대중성, 그리고 작품성을 감안해 볼 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2013년 3월 2일 토요일 라고스 시내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굿럭 조나단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놀리우드 스타들을 초청하여

³⁹ Leadership, I'm Ready To Collaborate With Nollywood- Kim Hak-soon, 2015.11.15

⁴⁰ 이데일리, 넷플릭스 한국 상륙, 콘텐츠·유료방송 업계 '희비', 2015.12.5.

⁴¹ Premium Times, Kunle Afolayan's October 1 gets Netflix deal, 2015.1.23.

⁴² Variety, Netflix Makes Another Big Splash With 'Beasts of No Nation', 2015.3.2.

⁴³ <http://irokotv.com/>

⁴⁴ Techcabal, iROKOTV has Announced It is Providing Content For Netflix's African Section, 2015.4.15.

⁴⁵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⁴⁶ BellaNaija, Nollywood & Mr. President! Goodluck Jonathan Pledges N3 Billion Grant to the Nigerian Movie Industry at Presidential Dinner to Celebrate Nollywood at 20, 2013.3.4

1992년 9월 케네스 은네부의 ‘속박의 삶’의 출시로 시작된 놀리우드 탄생 20주년 기념 만찬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조나단 대통령은 일명 ‘프로젝트 놀리우드’라고 명명된 3억 나이라 규모의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 지원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 기금을 통해 공식적으로 영화 시나리오 창작, 영화인 역량강화 및 영화 산업 기반 시설 지원을 통해 놀리우드 영화 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⁴⁶.

둘어해보면 놀리우드는 지난 짧지 않은 시기 동안 아프리카 스크린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은 전 지구 차원의 문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놀리우드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내지 국가 주도의 성장이 아닌 순수 민간 주도의 상업적 기반에 토대를 두고 자생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연방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은 놀리우드 산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 최대의 대도시 라고스의 작은 비디오 숍에서 탄생한 놀리우드 영화는 그 동안 아프리카 민중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삶의 취향과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중영화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뉴놀리우드 영화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로 이주해 살고 있는 엘리트 아프리카인의 삶의 취향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시네마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는 아프리카 민중의 삶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글로벌 대도시의 이주 문화 혹은 다문화를 반영한다. 이제 뉴

놀리우드 영화는 초국가적 의미의 나이지리아 영화인 것이다. 한마디로 놀리우드 영화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다. 뉴놀리우드는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전 세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공동체의 문화 소비재 차원을 넘어 보다 큰 의미의 디지털 미디어 혁명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전해린, 2011, 자원의 저주 딛고 경제대국 발돋움, 나이지리아, 세계는 지금, 2011.9. 통권 333호
- 미디어잇, 핀테크 시대① 현금이 사라진다, 2015.5.25.
- 이데일리, 넷플릭스 한국 상륙...콘텐츠·유료방송 업계 '희비', 2015.12.5.
- 세계일보, 阿 최대시장 떠오르는 나이지리아 주목해야, 2015.8.27.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한 나이지리아
- Akin Adesokan, 2011, Postcolonial Artists and Global Aesthe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 Alessandro Jedlowski, 2013, From Nollywood to Nollywood: Processes of Transnationalization in the Nigerian Video Film Industry, Matthias Krings & Onokome Okome (eds.), p.25
- Andrea Bandhauer, Michelle Royer ed., 2015. Stars in World Cinema: Screen Icons and Star Systems Across Cultures, I. B. Tauris
- Bellanaija, IJE divas Omotola, Genevieve & Chineze rule the red carpet as "IJE-The Journey" Premieres in Lagos, 2010.8.2.
- BellaNaija, Nollywood & Mr. President! Goodluck Jonathan Pledges N3 Billion Grant to the Nigerian Movie Industry at Presidential Dinner to Celebrate Nollywood at 20, 2013.3.4.
- Fortune, Meet 'Nollywood': The second largest movie industry in the world, 2015.6.24.
- Gorham Kindem ed., 2000, The International Movie Industr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Leadership, I'm Ready To Collaborate With Nollywood- Kim Hak-soon, 2015.11.15.